

## 학위논문 작성법

### 1. 연구주제의 선정

#### 1) 연구주제를 찾는 방법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어떤 글을 쓸 때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어떤 글을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즉,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다. 학위논문은 연구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역시 연구주제를 정하는 일이다. 연구의 주제를 선정하는 일은 학위논문의 첫발을 디디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어떤 주제가 자신에게 맞는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몇몇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시간과 흥미

우선 시간과 흥미의 문제이다. 학위논문을 쓰는 기간이 학사학위의 경우 대개 6개월에서 1년 정도이고, 석사는 이보다 약간 길고 박사의 경우는 대개 2~3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렇게 긴 시간동안 계속해서 본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학위논문이란 항상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범위가 넓거나 한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보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즉,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는 주제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위논문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최고의 논문을 쓰기 위한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주제를 선정할 때 자신의 역량이나 시간범위를 넘어서는 주제를 잡기도 한다. 따라서 학위논문의 주제를 선정할 때는 자신의 관심범위와 시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옛말이 주제를 선정할 때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좋은 격언이다.

##### 나. 독창성과 효용성

두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지침은 독창성과 효용성의 문제이다. 학위논문을 완성한다는 의미는 학위에서 요구하는 연구능력과 학습능력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스스로 어떤 문제를 설정해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논문이다. 따라서 주제의 독창성이 요구된다. 더불어 그렇게 해결한 문제가 이론적이든 실무적이든 일정한 공헌 즉, 효용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효용성의 정도와 독자적 해결능력은 학위의 요구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연히 박사학위가 가장 높은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 다. 관심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한 번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서 서술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능한 많은 주제들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제를 선정할 때는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를 먼저 선정하고 그 분야들 중에서 가능한 여러 주제를 리스트로 작성하고 이 중에서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평소에 자신이 관광객의 경험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자. 이 경우 가능한 주제로 여러분들은 '관광객들은 관광지를 방문한 후 어떤 경험을 얻게 될까' '관광객들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관광지를 홍보할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등을 주제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 안에서 자신이 배웠던 것과 읽었던 것들을 기초로 나름대로의 주제를 생각해 보고 이를 기록해 두는 것이다.

## 라. 5W1H

학자에 따라서는 5W1H의 방법을 추천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5W1H란 흔히 말하는 육하원칙을 말한다. 즉, 누가(who), 무엇을(what) 언제(when), 어디서(when), 왜(why), 어떻게(how) 했는지를 말한다. 즉, 어떤 관심분야를 정했거나 혹은 대략적인 방향이 정해지면, 이 육하원칙에 따라 주제문을 구성해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관광객의 이미지라는 관심분야가 설정되었으면 “누가 관광객의 이미지를 결정짓는가?” “관광지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와 같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또, “관광지의 이미지는 방문전과 방문후에 변화가 있는가?”와 같은 시기에 대한 질문을 구성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관광지 이미지는 왜 중요한가?”, “관광지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관광지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관광지 이미지는 관광지의 선택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등의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관심분야를 줄여서 구체적이 주제나 연구문제를 설정할 수 있겠다.

## 마. 다른 사람의 조언

물론 스스로의 관심에 의해서 주제를 찾을 수도 있지만 지도교수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주제를 찾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논문의 결론에 제시된 연구의 제언을 좇아서 연구주제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선호의 문제이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제를 찾아서 선정한다는 것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일종의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주제문을 하나만을 적어서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의 관심분야에 따라 여러 가지 주제를 만들어 보고 이중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즉, 주제와 관련된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리스트 중에서 2~3개의 주제를 잡으면 된다. 1개가 아닌 이유는 논문의 주제를 정해서 문헌을 읽다보면 생각지 못한 문제들에 접해서 주제를 변경해야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 2) 주제선정의 기준

그러면 리스트화된 주제들 중 어떤 것을 골라야 하는가? 학자에 따라서는 주제선정의 평가기준(예: 신기성/창의성, 시기적 적절성, 가치, 흥미, 연구수행능력, 자료 및 도구, 시간, 경제성, 검증가능성 등)을 정하고 이들에 대한 점수를 직접 매겨보고 점수가 가장 높은 주제를 선정할 것을 추천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의 경우는 반대로 제외시켜야할 주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뺀 나머지 것들 중 몇 개를 선택해가는 방식을 추천한다.

### 가. 남이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를 선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주제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잘 다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독창성을 인정받기는 쉬우나 정보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취사선택을 할 때 주의를 요한다.

### 나. 하나의 정보원에 의존하는 주제는 배제하라

만약 그 주제가 한편의 책이나 논문에만 의존해서 정보를 얻을 경우 역시 그 주제는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즉,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의 정보원으로부터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연구문제의 해결 역시 여기에 의존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당연히 논문의 독창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정보나 문헌 찾기가 불가능한 주제는 배제하라

도서관에서 그 주제에 대한 정보나 문헌을 찾기가 불가능하다면 그 주제 역시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정보나 문헌이 주로 자신이 읽을 수 없는 언어로 된 것이 대부분이라면 그 역시 경계대상이다. 특히 이 경우 자료를 찾는데 혹은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내에 논문을 마치기 어려워진다. 이 말은 결국 자신이 선정한 주제에 대한 자료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주제로서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료는 단순히 문헌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위한 자료를 포함한다.

라. 필요한 시간 내에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주제는 배제하라

4년에 한번씩 열리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게임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연구를 위해 자료를 수집할 목적이라면 학사나 석사 학위를 제출하는데 요구되는 시간내에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위논문의 주제로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북한주민들에 대해 여가의식이나 관광태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일 수는 있으나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하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고 자료에의 접근이 제한될 수도 있다. 따라서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이러한 주제 역시 학위논문의 주제로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주제를 선정할 때에는 항상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욕망을 절제하고 현실을 따라야할 것이다. 더불어 이 단계에서 꼭 해두어야 할 일은 자신의 주제를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머릿속에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서나 노트를 이용해서 문장을 표현해 두는 일이다. 이것은 나중에 초고를 작성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문제가 구체적이 되면 될수록 다음 단계인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문헌자료를 찾는데 도움이 되며 자료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준다.

## 2. 초고의 작성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문헌정보 검색과 정리가 끝나면 다음은 실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현실 자료의 수집이 시작된다. 자료의 수집방법은 이미 앞서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을 작성하게 된다. 논문을 작성할 때는 처음부터 완벽한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초고를 작성한 후 여러 번의 탈고를 통해서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된다. 초고를 쓰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체적인 개요 즉 아웃라인(outline)을 잡는 일이다. 예를 들어, 서론에는 무엇을 쓸 것이고 본론에는 어떠한 부분들을 제시할지 그리고 결론에 제시될 주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 제목들을 한번 써보는 것이다. 우선 서론에서 답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자.

### 1) 서론의 작성

가. 서론의 구성

서론에 답아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구가 왜 필요하고 어떤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주제나 연구문제, 연구목적, 필요성이나 배경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①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이 결국 자신의 연구주제를 서술하는 것인데 만약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분명하다면 이를 연구의 목적에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앞서는 만큼 먼저 서술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즉, ‘이 연구의 목적은 갬블링의 중독정도에 따라 카지노 이용행태가 달라지는지 카지노 이용객의 행태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라고 서술하는 것이 카지노 이용객의 행태적 특성이 갬블링의 중독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서술하는 것보다 독자들의 이해를 더 쉽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제를 제목으로 옮겨 쓸 때에도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관광지 혼잡도에 관한 연구’라는 표현보다는 ‘관광지 혼잡도가 방문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

## ② 연구문제

서론에서 제기하는 연구문제는 대개 의문문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하며 결국 연구의 결과에서 이를 검증해야한다. 따라서 연구문제를 서술할 때에는 이것이 수집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서술해야한다. 연구문제는 꼭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 논문에 따라서는 두 개 이상일 수도 있다.

## ③ 가설

대부분의 학술연구에서는 가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서론의 말미에 가설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면서 이론적 배경의 논리들 사이에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즉, 가설이 나온 근거를 이론적 배경이나 문헌 연구에 제시하고 가설을 연이어 제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 ④ 기대효과나 연구의 의의

서론에 연구의 기대효과나 의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즉, 결론을 제시하기 전에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기대효과나 의의를 통해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왜 이 연구가 필요한지 그 중요성을 제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나. 서론의 작성

서론을 쓸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첫문장을 쓰는 일이다. 항상 그렇듯 처음 시작이 가장 어렵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서론을 쓰는 방법을 몇 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① 연구주제에 사용된 개념의 정의

가장 흔한 방법 중의 하나는 연구주제에 사용된 개념을 정의하면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갬블링이란 “....” 으로 정의되는데“, 혹은 “도박중독성이란 “.....”으로 정의된다.“와 같이 서론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주장을 옮기면서 시작하는 것이다. 즉, “최근의 신문기사에 따르면 도박 중독성이 중요한 사회이슈가 되고 있다. OO신문 OO일자 사회면에 따르면 .....“과 같이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기사화된 사회이슈를 인용하면서 서론을 시작할 수도 있다.

### ③ 역사적인 흐름이나 사건의 언급

세 번째 방법은 역사적인 흐름이나 사건을 언급하면서 첫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현재 우리나라 관광객수가 처음으로 천만명이 넘어섰다....." 혹은 "1999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1999년 1월 21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첫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의 설립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와 같이 역사적인 흐름이나 사건이 서론을 시작하기 위한 좋은 단서로 쓰일 수 있다.

### ④ 문헌 연구의 정리

네 번째 방법은 문헌 연구를 정리하면서부터 서론을 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카지노 gambling과 관련된 최초의 연구는 ○○○으로부터 시작한다. ○○○에 따르면...." 혹은 "관광객이 관광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관광지의 영향은 크게 환경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으로 나뉘질 수 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연구가 된 것은 경제적 영향부분이다....."와 같이 서론을 시작하는 것이다.

### ⑤ 연구문제 서술

마지막으로 서론의 첫문장을 자신의 연구문제를 서술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제시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다. 즉, "왜 사람들은 도박에 중독되는 것일까? 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는 4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혹은 "도박중독자들의 카지노 이용행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어떤 차이를 보일까? 아마도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카지노에서 지출할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도박은 더 이상 재미를 주는 여가행위가 아니다...."와 같이 스스로 연구문제를 던지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논문에 대한 개요를 서론에 제시할 수도 있다.

## 2) 본론 작성법

서론에 대한 작성이 끝나면 이제 여러분은 자신이 설정한 연구문제를 통해 무엇을 발견했는지를 써나 가야 한다. 본론에서 여러분이 꼭 답아야 할 내용들은 연구문제와 관련된 다른 연구들에 대한 정리(문헌 연구 혹은 이론적 배경이라고 함), 자료 수집을 포함한 자세한 연구방법과 분석방법, 연구의 결과 등이다.

### 가. 문헌 연구

문헌연구를 제시하는 방식은 다양하겠으나 대개는 연대기순, 연구자순 혹은 이슈순으로 정리한다. 연대기순이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당연구주제가 학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기술하는 방식이고 연구자순은 이를 시대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이슈순이란 전체적인 문헌을 정리할 때 몇 가지의 견해나 연구주제 혹은 이슈를 중심으로 문헌을 분류하고 각 각의 중요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는 개인의 선호이겠지만 가능한한 주제와 관련된 모든 문헌을 읽고 숙지하고 있다는 점을 심사자들에게 잘 인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논문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논문의 작성에 꼭 필요하면서 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문헌들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다.

## 나. 연구방법과 분석방법

문헌연구에 이어서 본론에 제시되는 것은 바로 연구 방법과 관련된 언급이다. 앞에서 학습했던 조사방법들 중 자신이 선택한 방법과 그 이유를 정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사방법과 분석방법은 논문을 읽는 다른 연구자들이 반복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연구방법에 꼭 언급되어야 할 사항들은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 자료수집 방법, 표본을 사용했을 경우 모집단, 표본추출방법과 크기, 조작적 정의, 사용된 척도, 설문지의 구성과 문항수, 실험을 했다면 실험설계방법과 처리방법, 분석방법과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와 논리적 정당성 등을 제시해야 한다.

## 다. 연구결과

본론의 마지막은 항상 연구의 결과들로 채워진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논문에서도 결과의 전반부는 일반적인 조사의 결과들로서 표본의 특성, 사용된 척도의 타당성이나 신뢰성 등을 제시하게 된다. 척도에 대한 타당성이나 신뢰성의 경우는 앞의 연구방법을 제시할 때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사전에 제시할 수도 있으며 연구자의 필요에 의해 이를 다시 분석했을 경우 이의 결과를 표본의 특성들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그리고 서론에서 제시된 가설이나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들은 일반적인 결과의 제시가 끝난 뒤에 서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설을 사용했을 경우 이 가설의 기각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본론에서는 그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언급한 필요는 없다. 그 부분은 연구의 결론을 제시할 때 언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 3) 결론 작성법

### 가. 연구의 요약

결론은 서론에서 제시했던 문제들을 본론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결론부를 작성할 때는 연구의 주제를 다시 언급하거나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제시했던 결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기존의 이론이나 생각들이 자신의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일은 지나친 욕망으로 인해서 자신이 얻은 결과 이상의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연구결과를 비약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자신이 찾은 것은 쇼핑관광객에 대한 것인데 그것을 일반 여행객 전체로 비약시킨다거나 자신이 찾은 결과는 두변수간의 상관관계인데 이를 확대해석해서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하려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항상 자신의 연구결과를 객관적 시각에서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나. 연구의 시사점과 제언

결론의 요약과 더불어 제시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연구의 결과와 결론으로 인한 시사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이다. 연구자가 논문에서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연구를 통해 무엇을 알아내고 찾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연구를 기초로 해서 관광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더 해야 할지를 다른 연구자에게 전달하는 일이다. 특히 주의할 일은 시사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다음에 나올 연구의 한계점을 정리할 때쯤이면 연구자가 많이 지쳐 있고 이로 인해 서둘러 연구의 종지부를 찍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사점이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점을 명심해서 항상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시간계획을 미리 잘 짜두고 여기에 맞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 다. 연구의 한계점

일단 연구의 요약과 시사점을 제시했다면 다음은 자신의 연구에 대한 한계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모든 연구는 나름대로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완벽한 연구는 세상에 존재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것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한계이다. 만약 서울시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이 연구의 결과를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사람들에게 일반화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연구의 한계인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척도를 적용함으로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척도 중 한 가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척도의 효용성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한계로 제시될 수도 있다. 표본추출방법을 편의추출에 의존할 경우 역시 일반화에 대한 한계일 수도 있다. 대상지가 한정적일 때도 문제가 있다. 물론 연구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연구의 한계로 제시될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는 물론 연구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큰 것일 수도 있다. 이 경우는 한계라기보다는 잘못된 연구일 것이다. 따라서 연구를 설계할 때 가능한 연구과정에서의 실수나 오류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한계라면 다음 연구자를 위해서 분명하게 이를 제시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항은 연구의 한계와 연구의 오류는 다르다는 점이다. 연구의 한계는 한 연구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도 없고 모든 대안을 다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긴다. 그러나 연구의 오류는 연구자의 연구를 잘못된 연구로 끌어갈 수 있다. 따라서 최소화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 4) 연구 제목

사실 연구에 대한 제목은 이미 서론을 작성하기 시작했을 때 쯤 머리에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써 놓은 제목이 있을 수도 있다. 흔히 후자를 가제(working title, 워킹타이틀)이라고 한다. 서론에서 시작해서 결론까지가 다 끝난 초고를 마치고 난 후의 시점에는 연구의 최종 제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연구의 제목은 여러분이 설정한 연구의 주제문에서 시작하게 될 것이다. 연구의 제목이 하나의 문장이 될 필요는 없다. 주어나 동사가 없을 수도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자. 금강산 관광개발이 한반도의 평화향상에 어느 정도의 촉진 역할을 담당했으며 더불어 한반도 평화촉진에 확산효과를 발휘할 만큼의 공헌적 역할을 담당하였는가라는 두 가지 연구주제를 가진 논문의 제목으로 쓰인 것은 ‘금강산관광개발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공헌도에 관한 연구’였다. 문화컨텐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인가? 라는 연구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한 연구에 대해서는 ‘문화컨텐츠 산업의 성장요인분석’이라는 제목이 붙여졌다. 이외에도 다양한 예들이 존재할 수 있다. 어떤 학자의 경우는 논문의 제목 말미에 붙는 “~에 관한 연구나 분석 혹은 실증연구”와 같은 말을 붙이지 말라고 추천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학위논문이나 학술지의 논문이 연구가 아니거나 분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없고 실증연구의 경우에도 그 단어를 쓰지 않아도 논문의 요약만 읽어도 다 알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연구가 실증연구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결국 제목을 쓸 때에는 가능한한 짧게 명료하게 쓰는 것이 원칙이며 ‘OO에 관한 연구’와 같은 말은 사족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5) 연구 요약

대부분의 경우 요약문(Abstract)은 학위논문이나 학술지의 앞부분에 위치한다. 대개의 경우 서론의 앞에 제시되는데 논문을 읽는 사람이 제목다음으로 그 논문에 대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요약문이기도 하다. 요약문을 작성할 때는 우선 자신의 논문의 목차와 개요를 잘 읽고 이를 함축된 문장으로 옮긴다. 학술논문과 같이 요약문이 짧을 경우에는 주로 자신의 연구문제나 목적을 첫 문장으로 선택한 후 연구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한다. 그러나 학위논문의 경우는 간략한 연구의 배경이나 사용한 모형이나 이론 등도 포함하여 요약문을 작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술논문보다는 긴 편이다.

## 6)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학자들은 논문을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문장들이 논리적이며 간결하고 효과적이어야 하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평이한 표현과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문장을 서술할 때는 맞춤법, 구두점, 약어, 문법 등에 잘 맞도록 정확히 표현해야하며 지나치게 겸손하거나(예: OO 교수님의 OOO년의 논문에 따르면) 혹은 무례한 표현이나 독단적인 주장 그리고 감동적인 어조를 만드는 형용사(예: 굉장한 연구, 최고의 연구 등)나 부사(예: 아주 대단하게)의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구어체 보다는 문어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논문을 작성할 때는 가설을 진술할 때를 제외하고는 현재형이나 과거형을 주로 사용한다. 특히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인용하거나, 연구방법, 결과나 요약 등을 기술할 때에는 주로 과거형을 사용한다. 반면, 현재형은 용어의 정의, 이론의 일반적인 진술에 대한 인용, 연구의 목적이나 논의에서 연구자의 의견 삽입과 관련해서 사용한다.

인칭은 원칙적으로 3인칭을 사용하되 나 혹은 우리라는 표현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숫자의 표현은 10이내는 하나, 둘, 셋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그 이상의 숫자에 대해서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그리고 연속적인 수나 책의 페이지, 날짜 및 고유명사로 된 번호, 같은 내용에 대해 한 문절내에서 이미 두자리 숫자가 사용된 경우, 점수나 백분율, 측정단위가 붙는 수의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 3. 초고의 수정

일단 초고가 작성되고 나면 이를 수정해야한다. 아무리 유명한 소설가라고 해도 한번에 완벽한 글을 쓰지는 못한다. 대개 몇 번의 수정을 거치는 것이 상식이다. 소설에서 원고를 끝내는 것을 탈고라고 하며 이 과정에 이를 때 까지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친다. 학위논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탈고가 아마도 제출할 논문을 완성하는 것이다. 학위논문 역시 수번의 수정과정을 거쳐 제출본을 완성하게 된다. 처음 수정을 할 때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부분은 전체적인 논문의 논리구조이다. 즉, 서론, 본론, 결론이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지 등을 체크한다. 그리고 각 장 내부의 논리적인 연결도 빠짐없이 체크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각 장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두 번째 수정에 접어들면서 부터는 문장 하나 하나의 논리적인 표현, 문법, 철자, 반복적 표현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

수정을 할 때에는 가능하면 프린트를 해서 인쇄된 글을 읽어가면서 색깔 펜으로 수정할 것을 추천한다. 아무래도 컴퓨터 모니터를 이용할 경우 서론, 본론, 결론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론에 쓴 글을 옆에 두고 본론이나 결론을 보는 것이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수정부터는 컴퓨터를 이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보다 나은 수정을 위해서 수정계획을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가능하면 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적은 부분으로 이동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논문 전체를 보기 시작하다가 점차 문단, 문장, 단어의 식으로 줄어들어가면서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 두 번의 수정을 거친 후에는 지도교수나 자신의 동료들의 협조를 얻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대개 자신의 글을 수정할 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쉽게 보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정할 때에는 항상 파일을 백업해서 다른 곳에 두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잘못하면 다 쓴 글이 하늘로 사라질 수도 있다.



## 논문 초록에 대해서

### ※ 초록을 작성하는 이유가 뭘까?

- 1) 전문을 보기 전에 내용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 2) 초록의 출판만을 통해 논문을 소개하기 위해서
- 3) 문헌자료 조사를 위한 자료 파일로 사용하기 위해

그러므로, 초록은 저자에 대한 언급, 내용의 해석, 연구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비평 없이 정확하고 간결하게 제시해야한다.

### ※ 초록작성 형식

초록작성법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직설적인 방법과 전달적인 방법, 그리고 직설과 전달적 방법이 통합된 복합방법이 있다.

#### 1) 직설적인 방법

논문의 내용을 정성적으로 기술하는 형식으로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하는 초록작성 법이다. 비전문가가 독자인 경우에 적합하며 해설 논문에 적합하다.

#### 2) 전달적인 방법

토의나 주석이 없이 정량적으로 결과에 대하여 역점을 두어 기술하는 초록이다.

주로 학술지에 적합하다.

#### 3) 복합(직설-전달)방법

발견된 주요한 결과와 연구한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결합하여 작성한 초록이다. 대부분의 학술지가 요구하는 형식이다.

### ※ 초록의 내용 구성

초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는다.

#### 1) 왜 이 연구를 하였는가? (BACKGROUND)

연구의 목적, 주제, 연구 배경을 기술한다.

단, 논문 제목이 목적, 주제, 연구 배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를 생략될 수 있다.

#### 2)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졌는가? (METHODS)

연구 방법(새로운, 특이한 방법)을 기술한다.

#### 3)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는가? (RESULTS)

새로운 결과를 정리하면 함축성 있게 기술한다.

#### 4) 그 결과로 얻은 일반적인 결론은 무엇인가? (IMPLICATIONS)

강조되어야 할 결론, 고찰 부분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특히, 3), 4)항에서 새로운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 연구의 경우에는 3) 방법(장비)을 사용한 이점은?

4) 그 결과가 어떻게 잘 되었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기술한다.

### ※ 초록작성시 유의사항

- 1) 시제는 과거형으로 사용한다. 이미 연구한 결과를 언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내용 전달의 현실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 2) 이 논문을 한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자세로 쉽고 단순 명쾌한 단문으로 작성한다.
- 3) 일반적으로 150~200 영어 단어(최근 유명 학술지의 경우 100~150단어 이내로 제한)이고, 전체 논문 부피의 약 3~5%를 차지하며 하나의 문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4) 초록에 참고문헌이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 5) 표현에서 수동태보다 능동태를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 이는 제한된 단어 수에서 간결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독자에게 명확한 내용(주어/목적어)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6) 초록의 주요기능은 데이터 베이스 검색용이므로, 논문의 핵심용어들을 모두 초록에 포함하도록 한다.
- 7) 연구결과를 언급할때 '대부분', '일부', '상당히' 등 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정확한 수치로 표기한다.

#### ※ 영문초록 작성시 참고사항

- 한글은 문단 시작시 한칸을 들여쓰지만, 영문은 5칸을 들여쓴다. 보통 비공식적인 작문, 이메일 등의 경우는 들여쓰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Academic Writing이나 공문서일 경우는 들여쓰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논문 제목 표기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 1) 모든 단어의 첫 문자는 대문자화 한다.
  - 2) 관사는 제목 제일 첫 글자이외는 대문자화 하지않는다.
  - 3) 전치사는 대문자화 하지않는 것이 원칙이나 between 등과 같은 긴 전치사는 대문자화 함.
  - 4) 접속사는 대문자화 하지 않는다.
- 대학교,대학원,소속,제출자 등 한글과 달리 위의 역순으로 기재한다.
  - 1) 제출자 이름만 쓴다.
  - 2) 소속 과 The Department of \*\*\*\*\*
  - 3) 소속 대학원 The Graduate School of \*\*\*\*\*
  - 4) 소속 대학교 \*\*\*\*\* University
  - 5) 지도교수 Academic Advisor (혹은 Supervisor) Prof.(이름)

#### - 접속사

- 1) 영문은 국문보다 접속사를 덜 사용한다.
- 2) 빈출 접속사에 주의해야 한다. 이메일, 친구간의 편지 등에서는 등위접속사가 문두에 오는 것이 괜찮지만 academic writing이나 공식적인 문서에는 등위 접속사로(and, but, so 등) 절대,절대,절대(never ever ever ever)문장을 시작할 수 없다. 접속 부사 혹은 연결부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종속접속사와 접속부사, 등위 접속사의 용법을 구별할 줄 모르는 영작이 나오면 의뢰하지 말아야 한다.